

지스트, (주)나영산업 고정주 회장에 명예공학박사 학위 수여

- 지스트 발전재단 이사장으로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및 우수 인재 양성 공헌
- 지역 대표 중견기업 경영, 지식산업센터 투자 등 지역 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 기여



▲ 지스트는 8월 30일(화) 오후 오룡관에서 고정주 회장의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지스트 김기선 총장, (주)나영산업 고정주 회장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가 지역 산업 발전과 지스트 발전에 공헌한 (주)나영산업 고정주 회장에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지스트는 8월 30일(화) 오후 지스트 오룡관에서 김기선 총장과 주요 보직자, 지스트 발전재단 이사진, 지스트 아카데미 이용범 총동문회장과 고정주 회장의 가족 및 지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회장의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지스트는 “고정주 회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으로서 타고난 근면성과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오랜 기간 중견기업인 (주)나영산업을 운영하며 국가 산업과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창업가”라며 “또한 2019년부터 (재)지스트 발전재단 이사장을 맡으며 지스트의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과 우수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 회장은 광주광역시에서는 최초로 국비와 민간자본이 함께 추진한 지식산업센터 '**KBI 하남**'의 민간 투자자로 참여해 노후한 광주 하남산단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연구개발동, 생산동, 기숙사 등을 갖춘 현대적 복합허브를 구축해 청년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등 산단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KBI 하남**'은 동종 산업의 집적화, 다른 업종 간 협력사업 등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산업단지 고부가가치 혁신 랜드마크로서 완벽한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활성화 및 청년 창업 인큐베이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광주의 미래·하남산단의 성장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정주 회장은 △도서 기증 △구례지역 20개교 스마트기기 및 마스크 전달 △고씨종문 장학금 △지스트 봉사동호회'여민락'활동 지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으로서 지역 경제·산업계의 귀감이 되어왔다.

고정주 회장은 그간의 업적과 공로를 인정 받아 **중소기업유공자 대통령 표창,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 표창, 광주시민대상, 발명인상** 등 여러 상을 수상한 바 있다.

명예공학박사를 수여받은 고정주 회장은 "오늘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지스트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교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기선 총장은 "고 회장님은 명실상부 지역을 대표하는 모범 기업인이자 우리 과학기술인과 지스트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창업가"라며 "지스트와 지역 발전을 위해 넘치는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고 회장님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이다"라고 말했다.